

# 나를 낮추니 부부에 깊어지네



부부로 산다는 것  
최정미 외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8천8백원

결혼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의 결합이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며 양보하고 적정 타협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선배 부부들은 조언한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쫓아갈 때, 아무리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무리 안해도 좋으니가 숨소리만 내면서 그냥 살아만 있어줘”

최근 모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한 대사다. 바람만 남기고 떠나 버린 아내를 위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헌신적인 간호를 한다는 내용이다. 결혼하는 커플 수만급이나 이혼하는 커플이 늘어남은 요즘, 부부애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해 시청률이 제법 높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도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부부인지를 감동 있게 그려내 이 드라마 만큼이나 주목을 끌고 있다.

질질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 후 일상과 현실에 파묻히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미움을 남기고,



## 결혼 후 일상과 현실에 파묻혀

서로에게 상처와 미움만 주며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전하는

50인의 감동 실화

끝내는 서로를 증오하며 남이 패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꿈꿔왔던 행복보다 가슴 아픈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 부부들에게 이 책에 담긴 50인 부부의 감동 실화는 그들이 처음에 꿈꿔왔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전해 준다.

### # 책속 이야기 하나

고령의 노인이 의사에게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했다. 의사가 노인에게 건강하게 산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5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결혼 초에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지요. ‘내가 화나면 당신이 부역으로 비껴주고, 당신이 화가나면 내가 산책을 가겠소’ 라는 거였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거지요.”

### # 책속 이야기 둘

어느날 남편은 자신의 양복을 사겠다고 아내와 백화점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의 샌들 끈이 끊어져 버렸다. 그 샌들은 아내가 연애할 때부터 신던 것이다. 아내는 샌들을 질질 끌고 백화점을 누볐지만, 남편은 오로지 자신이 산 새 양복만 보며 흐뭇해 했다.

오히려 남편은 이런 아내가 공상했다는 듯 집 근처 가게에서 만원짜리 싸구려 신발을 아내에게 안긴채 샌들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다음날 현관에는 아내의 끊어진 샌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아내는 웃으며 “내 발이 평발이라 새 신발은 발이 아파”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내의 발을 잡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라며 고개를 숙여주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유리여행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무심히 내뱉은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은 남편이 15년간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영국으로 가족간의 추억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결혼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을 멀리 보내며 처음엔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지만 두 아이라는 고마운 선물과 부부라는 좋은 인연을 맺어준 것에 감사함을 깨닫는 아내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단지 부부들의 감정적인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감동은 훨씬 반감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에피소드 말미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부부들이 꼭 지기고 싶던 해야 할 50가지 일들이 요약돼 있다. 예를들면 ▲상대방에게 먼저 감사하고 미안해 할 것 ▲다른 부부들의 자랑이나 잘난척에 당당히 맞설 것 ▲그래도 한번만 더 잡아볼 것 ▲항상 서로를 발전되게 가꿀 것 ▲화목해 지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도입할 것 등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제시돼 있다.

지은이들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선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하고 지속적인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적어도 부부끼리는 자신을 먼저 낮추는 최소한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한다.

현재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이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이 책을 접한다면 아마 혼자서는 외로운 자유보다, 둘이 함께 토닥거리는 평화의 냄새를 진하게 맡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아로새길 것이다. ‘결혼했다 방심 말고 오는 연적(戀跡) 막아내자’는 명언을.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  
한창호 지음 | 돌베개 펴냄 | 1만8000원

영화평론가故 정성일씨의 말대로 정갈 영화는 ‘도둑질의 예술’이다. 20세기 이후 가장 지대한 영향력으로 위대한 예술임에 분명한 영화는, 그만큼 이전의 예술 형식에서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이 과거 ‘씨네21’에 연재된 글들을 모은 것이기에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글쓰기의 제한점도 있겠지만, 역시나 기본적으로 두 매체를 비교하는 데 있어 주요 기준은 시각적인 유사성의 상호 연관관계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읽는 독자들에겐 그 유사성으로 인해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일 수도 있겠으며 한편으로 너무 비약적으로 유사성을 짚맞춘 듯한 인상은 연재용 글이 가지는 분석의 분명함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영화와 미술(구체적으로 회화(Painting))이상의 관계를 명료하게 분석함으로써 왜 영화가 도둑질의 예술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한다. 또한 영화와 미술이 특유의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있어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해석에 대해 미술작품은 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한다.

## 스크린, 그림을 훑는다

이 책에 소개된 러시아 감독 알렉산더 소쿠로프의 다큐멘터리 ‘여행 엘레지’에는 다음 같은 감독의 고백이 나온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온 유랑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모사와 아카리 감독은 만년의 걸작 ‘꿈’ 중 빈센트 반 고흐를 다룬 에피소드 ‘까마귀’에서 아예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을 표현했다.

지은이의 표현을 빌리면, “상대적으로 젊은 소쿠로프가 그림 앞에서 주저했다면 노인 구모사와는 천진난만하게 그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림 속에 들어간 주인공은 생전의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고 그가 그린 그림 속의 풍경을 앞에 두고 감는다. 이 장면은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 다시 영화로 재현되는 순간이자 동시에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시적 표현이기도 하다.”

세상의 이미지를 스크린에 옮기는 영화감독들은 활동사진의 역동성을 사랑하면서도 벗없이 스크린에 비쳤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대신 화가가 캔버스에 남긴 그림의 불멸성을 질투한 것 같다.

미술가의 일대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아닌 이상, 혹은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미술 작품을 도드라지게 인용, 언급되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어떤 미술 작품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만큼 별개의 것으로 생각될 만큼 다른 매체로의 표현이 자감성의 태도와 감성 공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서로간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상정함으로써 두 예술이 가지고 있는 미적 성질들이 더욱더 새롭게 발견,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복교(중앙대 연극영화과 강사)

도서구입은 www.yosiamun.com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과정 ① 맥진반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 개강: 2005. 12. 5 월·화반, 수·목반(주·야간반: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사로 10년 경력의 월은은 물론 일문일처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 명리전문가과정

### 정통풍수강좌

##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 부산: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051)804-8571, 018-312-7110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원두막 6000 x 3000 x 3200 [mm]  
8000 x 3000 x 3200 [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패널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x 620 x 350 [mm] 가격: 150,000 할인가: 120,000  
1800 x 1030 x 350 [mm] 가격: 180,000 할인가: 150,000  
특수 제작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www.bangaro.com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광영호  
진화수문서 무료배송 [전통목기세벌도] 지역대리점 보실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 좋은 만남 멋진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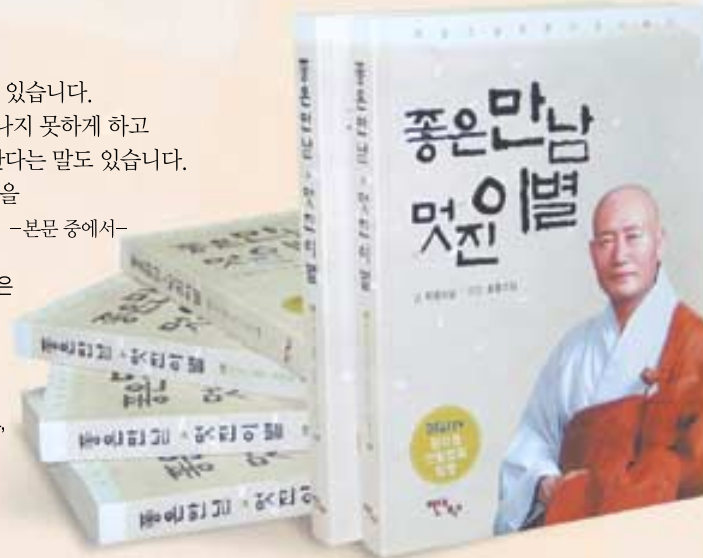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변형국판 240페이지 / 정가10,000원

###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았어야 타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심판의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전) 지리산 실상사 주지 · 전) 화양산 봉암사 주지 · 전) 온달산 김룡사 주지  
· 전)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화주 · 현재 생령사는 실천본부 부이사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개달음의 노래) 출판(간단)

현대 불교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